의정부

TMI

천변풍경

의정부문화재단
UIJEONGBU CULTURAL FOUNDATION

중랑천에서 만나는 일상의 이야기

의/정/부 중랑천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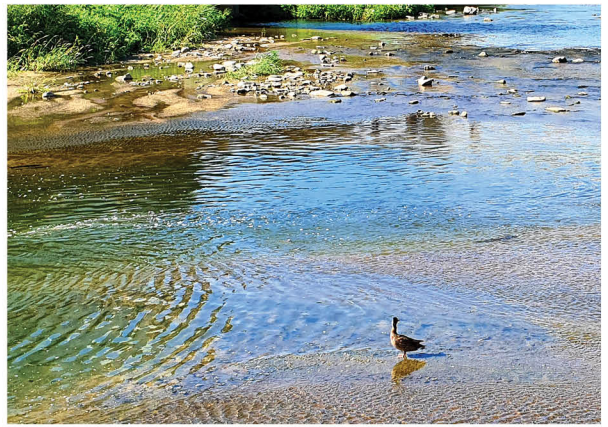
의정부 중랑천TMI는
중랑천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의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CONTENTS

03 **기 억 1** 중랑천에서 만난 오리를 보며…
04 **기 억 2** 부용천 스케치, 꽃길을 발견하다.
05 **인터뷰 1** 출퇴근길이 마치 소풍길 같아요!
06 **인터뷰 2** 할 말이 많으신 60대 아저씨
07 **인터뷰 3** 자전거 타는 노부부를 만나다.
08 **인터뷰 4** 나에게 중랑천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보물 같은 공간
09 **인터뷰 5** 인라인스케이트장 풍경
10 **기획 취재** 소풍길 탐사대를 기획자를 만나다.
12 **편집 후기**

발행일 2021년 10월 23일
발행처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기 획 천번풍경
주 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
연락처 031-828-5841
디자인 세방기획 02-2268-8081

중랑천에서 만난 오리를 보며…



조카가 세 살 무렵, 중랑천을 산책할 때마다 "오리, 오리" 하며 오리들을 쫓아다녔다. 언니를 따라 나도 며칠에 한 번씩은 개천에서 오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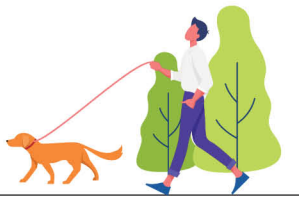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아 분주할 때, 중랑천의 오리 유치원도 개원을 한다. 이상하게 큰 오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새끼 오리들만 무리 지어 요리조리 돌아다닌다. 시간을 쓰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가끔 오리들이 잘 있나 살펴보곤 했다. 그러다 일이 생겨 바빠져서 잊고 지내다 한참을 지나 개천에 가보면 어느새 오리 유치원은 사라지고 오리 군단이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매해 봄이 되면 오리유치원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봄에 어른 오리를 만나면 저 오리가 작년에도 있던 오리인지 아닌지 궁금해진다. 오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용기 내어 물어보고 싶다.

"오리 선생님, 잠시 만요. 혹시 작년에도 여기 계셨나요? 알아 뵙지 못해 죄송해요."

오리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오리 선생님"하고 불러보는데 눈을 마주쳐주진 않으신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오리 유치원 개원하는 시기를 놓쳐 보지 못하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빨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적어도 중랑천이나 부용천에서 아기 오리가 성장할 때까지 별다른 위협 없이 잘 크는 것처럼 인간 세상도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기다린다.

의정부 40년째 거주 중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아가 엄마 J**



부용천 스케치, 꽃길을 발견하다.

부용천 꽃길

중랑천을 지나 오른쪽으로 뻗어있는 천변을 따라가면 부용천이 펼쳐집니다. 천변풍경 팀은 동오역, 새말역, 제2청사역, 효자역을 거닐던 중 예전에는 없었던 꽃길을 발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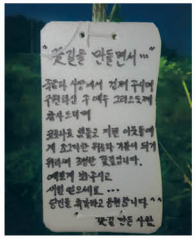
부용천 꽃길 해바라기

효자역 부근부터 시작된 이 꽃길은 곤제역까지 상당히 긴 천변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 아래에 하늘 분홍 보라의 코스모스, 그리고 노란 금계국이 정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천변 쪽으로 만들어진 이 꽃길은 그리 단정하지도 정돈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정겨울까요? 그 길을 따라 중간쯤 가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꽃길을 만드신 분의 손글씨로 쓰인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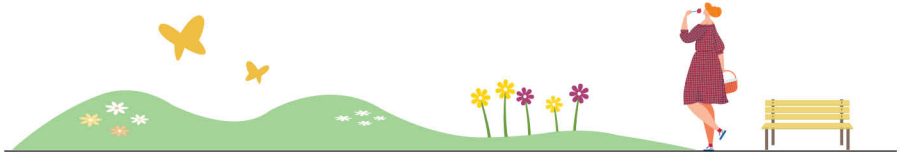
부용천 꽃길 팻말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하여 조성한 꽃길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새 힘 얻으세요… 당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매직 글씨 하나하나에도 꽃길을 만드신 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꽃과 함께 그분의 마음이 전해지기에 오늘따라 의정부 부용천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30대 **직장인 K**



출퇴근길이 마치 소풍길 같아요!

자전거 길이 잘 정비된 의정부 천변! 평일 오후 자전거를 타시는 40대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자전거를 타러 나오시냐는 질문에 평소에도 즐기지만, 특히 이분은 천변을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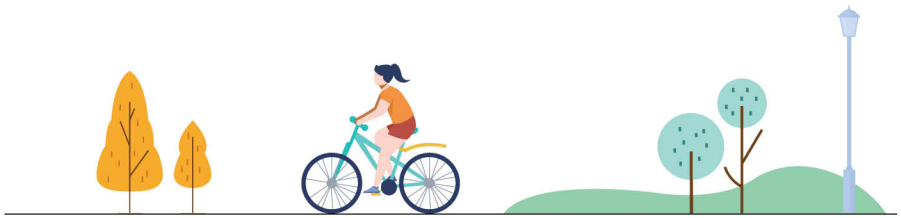
같은 천변이지만 걸으면서 느껴지는 풍경과 자전거를 타면서 느껴지는 풍경은 참 다르다고 하시네요. 높고 푸른 하늘, 바람결, 물소리, 새소리, 천변을 헤엄치는 오리들의 모습도 정겹다고요. 매일 30분 정도씩 걸리는 출근길과 퇴근길, 천변을 이용하면서 소풍 길이 되었다나요?

퇴근길에는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벤치에 앉아 자연도 감상하고 책도 읽고 하신다고 합니다. 최근 부용천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달리기가 더 좋다고 하시며 정비가 더 필요한 곳도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살짝 전해주셨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중랑천 곳곳에 징검다리, 다리 등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자전거도 쉽게 운반하게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자연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시고 자전거 가지고 의정부 천변으로 나오세요!~"라며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우리도 자전거 끌고 천변으로 나가볼까요?

출퇴근길에 사용하는 **자전거**

자전거를 타시는 **40대 여성분**



할 말이 많으신 60대 아저씨

주말 오전 회룡역 부근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서 60대 아저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의정부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정도 되었죠.

자주 나오시나요?
네, 자주 나오죠. 거의 20년 동안 중랑천을 매일 나왔어요.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하기에 바쁜 시간이라도 틈틈이 시간 내서 나와요. 오늘은 또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 같습니다.

나오면 주로 어떤 운동을 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해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려고 나왔죠. 사람들 모두 자기만의 특색있는 운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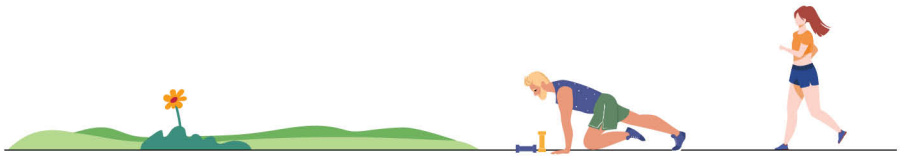
의정부 중랑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랑천은 강 주변에 자전거도로만 낸 형태에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힘든 면이 있죠.

중랑천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생각한 게 있으시나요?
시청 같은 공공기관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시설이 있었으면 해요. 문화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게

의정부 중랑천에 배치된 운동기구

공간을 넓게 만들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화 마당이나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 강사의 춤 교실 같은 거 말이죠.

혹시 안전 관련해서 생각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여기가 밤에는 무서워서 야간에는 못 다녀요. 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데 중간중간 위험 방지 시설을 만들고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전엔 자전거 사고가 없었는데 요새 사고가 자주 나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이해하고 분석해 이에 맞춘 형태로 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해요.



자전거 타는 노부부를 만나다.

발곡역 부근 다리 밑에서 운동복 차림을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돌 벤치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시간 괜찮다면 인터뷰할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의정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나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자전거 타고 중랑천 따라 여기까지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냥 자전거는 아니고 전기 자전거예요.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오죠. 여기는 잠깐 쉬려고 앉은 거고, 저기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 쪽으로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데 의정부 쪽으로 온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서울 쪽은 복잡해요. 바로 옆으로 자동차들이 시끄럽게 다니죠. 의정부 쪽으로 올수록 자전거도로도 넓고,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이 많아 좋습니다. 차도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의정부 쪽으로 올라올수록 공기도 좋아지는 것을 확연하게 느껴요.

정답게 앉아서 쉬고 있는 부부

↑ 큐알코드를 통해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만 타시나요?
처음 왔을 땐 걷기만 했는데 요새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려고 전기 자전거를 샀어요. 가끔 왔었지만 이제 자주 다니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온 모습이 보기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 같은 공간

중랑천을 배경으로 인터뷰 중인 시민

발곡역에서 산책 중이던 의정부에서 40년 이상 거주하신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중랑천에서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살아오고 있어요. 저에게 중랑천의 기억은 매우 특별해요. 어릴 적 이곳은 물길만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흙, 모래가 조금 있었던 곳으로 물이 맑아 물고기도 살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옷을 입은 채로 물놀이도 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랍니다.

달집태우기를 했던 기억도 생각나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는 저의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코로나 전에는 이곳에서 대보름 축제 및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요즘은 중랑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내에 많이 모일 수 없기에 친구들을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감사한 공간이에요. 또 출근길로서 꼭 필요한 곳이에요.

과거와 현재 여러 가지 풍경과 사람들은 변하고 있지만 이곳 천변에서의 산책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곳이에요.
저에게는 중랑천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앞으로 중랑천이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욱 다양한 문화 축제와 공연들을 기대하며 많은 주민이 이곳 중랑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풍경

의정부 천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두 곳 있습니다. 발곡역 부근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치고 있는 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보드 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네요.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자주 오시나요?
네, 스케이트보드 배우는 중이라 자주 와요.

이곳으로 나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드를 연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랑천에서 보드를 배우고 연습하죠.

이곳 보드 타기 어떠세요?
중랑천 풍경을 보면서 보드를 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나왔는데 보통 저녁 8시쯤이 되면 보드 타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의정부에서 보드 타기에 이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아쉬운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곳은 인라인스케이트나 보드 전용 공간인데 종종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충돌하기도 해요. 좀 더 안전하게 인라인을 즐길 수 있도록 서로 기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소풍길 탐사대 기획자를 만나다.

Q 의정부에 거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다섯 살 무렵 의정부로 이사 왔습니다. 초·중·고를 다 의정부에서 다녔고 46년째 거주 중입니다.

소풍길 탐사대 기획자 **강선곤**

Q 천변에 얽힌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릴 적에 살던 곳은 중랑천과는 거리가 있었고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다른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기억이 있어요. 한참 물놀이하다가 주변을 보면 근처 밭에 무를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지키고 계시지 않으니까 어린 마음에, 잘 익은 무를 뽑아서 먹던 기억이 있어요.

하천에서 놀다가 옷이 다 젖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산기슭으로 가면 개암나무가 있는데 개암 열매는 바로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어서 개암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도 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개고기를 드실 때 하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가마니로 덮은 다음에 불을 질러 털을 태우고 잡는 도살을 하셨는데요.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래에는 천변 길이 매우 소중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아내와 산책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악기를 다루는 취미가 있어서 산책 나갈 때 오카리나를 챙겨나가 천변에서 연습하기도 해요. 천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구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활력을 주죠.

Q 작년에 [소풍길 탐사대]라는 걸 기획하셔서 운영하셨는데 기획 배경은 무엇인가요?

의정부 문화재단에서 [오늘도 평화로운 의정부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 저는 군사도시라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에서 기획을 착안하게 되었죠. 미군부대, 군사도시라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자꾸 언급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콘텐츠를 부각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산인 [의정부에는 소풍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의정부의 이미지를 전환하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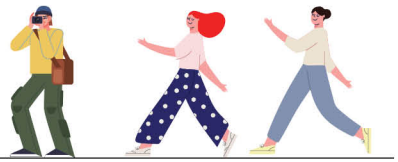
Q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나요?

처음엔 [소풍길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소풍길 탐사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풍길을 단순하게 알리는 것보다 더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소풍길은 산길도 있고 하천 길도 있는데 [소풍길 탐사대]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하천 중심의 경로를 구성해 보고자 계획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의정부의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4대 하천길 중심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으로 이어지는 코스 답사를 통해 경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은 게 제2 북부청사입니다. 의정부에서 북부청사는 의미가 깊은데요. 요새 경기북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부청사를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경기북도를 응원하는 의미도 담았어요. 북부청사를 지나 중랑천 합수부를 지나서 역사가 오래된 농산물 도매시장을 참가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최근 만들어진 음악도서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백석천으로 올라가 도시재생마을(새뜰마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드렸죠. 그런 후에 회룡천으로 올라가 오카리나 연주를 하면서 회룡역을 나오시는 분들께 [소풍길 탐사대] 홍보지를 나눠드렸어요. 의정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경전철을 회룡역에서 타고 중앙역에서 내려 참가자분들과 부대찌개를 먹는 코스로 마무리 했습니다.

Q 천변에 관련된 다른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다리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소리가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중랑천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데 어느 다리에서 공연하기에 좋은지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천변의 다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 편집 후기 >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정부 천변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미 의정부 천변은 의정부 시민들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주민 이외에도 찾아올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아끼고 발전했으면 합니다.
- 편집담당 K와 C -

동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 하천,
그것으로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음악영상 담당 J -

타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의 연결고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취재담당 K -

의정부문화재단
UIJEONGBU CULTURAL FOUNDATION

이 소식지는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습니다.